

duduri Mebook AA005

# 드레퓔스: 개인주의와 지식인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



번역: 권화연  
애삽: 박성연

duduri Mebook AA005

# 드레퓔스: 개인주의와 지식인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



번역: 권화연  
삽화: 박성연

# 개인주의와 지식인

---

- 출판사 | 두두리
  - 저자명 | 에밀 뒤르켕 (**Emile Durkheim**)
  - 공헌자 | 본 콘텐츠는 대한주택보증(주)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출판일 | **2010-10-11**
- 

책 소개

저작권

본 미북의 저작권은 저자 및 두두리에 있습니다.

## 드레퓔스 : 개인주의와 지식인

에밀 뒤르켐  
(**Emile Durkheim**)



번역 : 권화연 / 해설 : 박성현

해설  
(박성현)

- 참된 개인은 진실과 함께 한다

사회는 키워드에 의해 운영된다. 자신이 당면한 과제를 정확한 키워드로 정리해서 이를 직시하는 사회는 쇠락하지 않는다. 반면에, 핵심 과제를 외면한 채 엉뚱한 것을 키워드 혹은 화두로 삼고 있는 사회는 쇠락할 수 밖에 없다. 진실이 은폐된 위선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뜨겁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조만간에 개인주의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글로벌 시장 경제 속의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란 무엇인가?” 또

한 “ 어떤 사람이 훌륭한 개인인가 ?” 라는 화두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 . 개인이라는 존재를 회피한 채 , 공동체 , 대한민국 , 민족 , 진보 , 보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

근대 국가는 유럽에서 태어나서 '발전했다. 근대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 역시 유럽에서 태어나서 발전했다. <근대 국가의 개인>은 1790년에서 1810년 사이의 칸트 철학에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1815년 나폴레옹 패망 이후 100년간 지속된 팍스 브리태니카(PB, Pax Britanica) 시대에 유럽의 개인은 서서히 병들어 죽어버렸다. 세상과 자아 사이의 건강한 긴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개인이 있던 자리를, 국가 혹은 민족 혹은 계급 혹은 정당 혹은 집단이 차지했다. 유럽 바깥에 대해서는, 유럽 열강 사이의 지구 분할에 따른 식민지 지배체제가 들어섰고 유럽 내부에서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군국주의, 계급투쟁이 사회와 삶의 운영 원리가 되었다. 1890년쯤 되면 국가, 민족, 군사, 인종, 계급과 같은 단어들이 유럽인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되었다. 칸트가 이야기했던 “이성을 갖춘 자아의 존엄성”라는 구호는 공염불에 그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세상과 자아 사이의 건강한 긴장이 사라지면 자아가 죽는다 . 키에르케고르의 말대로 세상과 자아 사이의 긴장 그 자체가 곧 자아이기 때문이다 . 자아가 죽으면 개인도 사라진다 . 자아야말로 개체성 (individuality),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

1873년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에 따른 세계 공황 이후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화는 그 발걸음이 매우 빨라졌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 1) 패권적 민족주의/국가주의

모든 유럽 국가가 패권적 민족주의 / 국가주의를 추구했다 . 이 흐름에서 나중에 이탈리아의 파시즘 , 오스트리아의 파시즘 (Dollfuss), 독일의 나치즘이 나왔다 .

#### 2) 식민지 각축

지구를 분할하여 자기 나라의 기업 및 사업가들만 활동할 수 있는 배타적 식민지를 구축했다 . ‘ 총독 ’ 을 파견하여 직할 체제로 운영했다 .

#### 3) 군사력 중시 혹은 군국주의

유럽 열강들 사이에는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꿈틀거렸다 . 이제 벌어지게 될 전쟁은 과거와 달리 근대 과학기술과 징병제에 바탕한 현대의 총력전 (total war) 이 될 수 밖에 없었다 .

#### 4) 계급 갈등의 격화와 복지 국가로의 이행

식민지 경영에 의한 국부의 급격한 증가는 계급 갈등을 격화시켰다 . 이에 따라 마르크시즘은 1870 년대에 급속하게 그 세를 불렀다 . 유럽 열강들은 앞을 다투어 복지 국가로 이행함으로써 국내의 계급 갈등을 완화하려고 시도했다 .

## 5) 반유대주의

19세기 유럽의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 빈민가’(ghetto)에 갇혀서 살아가는 가련한 종족에 머물지 않았다. 이들은 학계, 문화계, 경제계, 법조계 등에서 눈부신 약진을 보였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자 및 급진운동가들 중 상당수가 마르크스 자신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사회민주당(SD)와 사회혁명당(SR)의 중축은 당시 러시아의 영토였던 폴란드 출신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마디로 19세기 중하반기에 유대인은 매우 두드러진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포그롬(pogrom)<sup>2</sup> 이벤트의 대상이었던 유대인이 이제 ‘지배적 위치를 넘보는 존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870년대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맹렬한 반유대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과거에는 단순한 이질감과 심술에 바탕한 증오였지만,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유대인의 사악함과 열등함을 겨냥한 증오였다. 따라서 반유대주의는 근본적으로 ‘유대인의 전면적 축출 혹은 제거’를 지향한다.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의 씨앗은 이미 19세기 말에 뿌려졌던 것이다.

이렇듯 19세기 말 유럽에서는, 개인이 멸종한 자리에 제국주의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드레퓌스 사건이다. 1894년 11월 알자스 유대인 태생의 프랑스 육군 포병 대위 알프레드 드레퓌스가 프랑스 주재 독일 대사관에 프랑스의 군 기밀을 지속적으로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종신형을 받고 프랑스령 기아나의 ‘악마의 섬’으로 유배당했다. 영화 ‘빠빠용’의 무대가 된 바로 그 섬이다. 그러나 1896년 참모본부 정보국에 발령을 받은 조르쥬 피카르(Georges Picquart) 중령은 드레퓌스의 반역죄는 조작된 증거에 기초한 것이며 진범은 페르디낭 에스테라지(Ferdinand Esterhazy)임을 밝혔다. 그러나 프랑스 군부는 피카르의 증거를 묵살했다. 1898년 1월 10일, 11일에 열린 심리에서 군사법정은 만장일치로 에스테라지를 무죄 방면했다. 한편 피카르 중령은 60일 동안 감금되는 처벌을 받은 후 타 지역으로 전보 발령 받았고, 드레퓌스는 방첩장교 앙리 소령이 조작한 문서에 기초해 추가 기소되었다. 한마디로 프랑스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간첩이든 아니든,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너희, 냄새 나는 유대 놈들이 감히 위대한 프랑스 군의 장교가 될 수 있나? 드레퓌스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잘 봐 뒤. 교훈이 될 게야!”

패권적 국가주의 혹은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유럽 국가들에 있어 국가 핵심 조직으로부터 ‘유대인을 청소해 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유대인 청소’는 1960년대 폴란드 공산당에서 일어났다. 이 숙청을 피해서 영국으로 망명한 골수 유대인 공산주의자 중의 한 명이 요즘 ‘포스트모더니즘과 윤리’라는 주제로 유명해진 바우만(Zygmunt Bauman)이다.

1898년 1월 13일 에밀 졸라(Emile Zola)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형식으로 “나는 고발한다!”(J'accuse!)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드레퓌스 사건을 폭로했다. 졸라는 이렇게 썼다.

“공중에게 거짓말하는 것, 가장 사악하고 치명적인 음모를 위해 공론을 미친 듯이 왜곡하는 것은 범죄이다. 순하고 소박한 마음에 독을 타는 것, 자유를 사랑하는 <인권의 프랑스>를 파괴하게 될 반유태주의에 호소해 반동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은 범죄이다. 증오를 위해 애국주의를 악용하는 것은 범죄이다.... 진실과 정의의 시대를 성취하려 애쓰고 있는 때에 무기와 폭력을 <현대의 신>으로 떠받드는 것은 범죄이다... 진실이 지하에 묻혀 쌓이고 쌓이게 되면 모든 것을 날려 버릴 폭발력을 획득한다... 나의 이 글은,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재촉하기 위한 급진적 행동이다.”

드레퓌스 사건은 진흙탕에서 치고 받는 소동이 되었다. 왜냐하면 어느 편도 반유태주의가 패권적 국가주의의 필수 구성 요소라는 사실과, 패권적 국가주의가 곧 제국주의이며 유럽 문명의 생존 방식이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거대한 위선 속에서는 개인과 진실이 압살당할 수 밖에 없다는 끔직한 진실을 폭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은 자아, 즉 개인은 진실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존재라는 점을 망각했던 것이다. 위 글을 쓴 에밀 졸라조차, 당대의 유럽을 ‘진실과 정의를 성취하려 애쓰는 시대’라고 착각하고 있다. 천만에! 그 당시의 유럽은 아마 진실과 정의, 그리고 개인이 멸종한 상태였던 것이다.

## ●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 이야!

당대 최고의 프랑스 문호였던 에밀 졸라의 폭로를 계기로 리버럴 혹은 좌파 성향의 프랑스 지식인들은 드레퓌스 사건에 대해 맹렬한 항의 운동을 펼쳤다. 이에 대해 패권적 국가주의에 찬성하는 우파 제국주의 지식인들은 맞불을 놓았다. 그 대표적 인물이 페르디낭 브뤼네티에르(Ferdinand Brunetiere)이다.<sup>3</sup>

브뤼네티에르는 이렇게 말한다.

(드레퓌스를 옹호하는 지식인들은) 오류를 가르치고 영혼을 부패시키고 이욕고 사회 전체를 부패시키느라 삶을 허비하는 학계의 수치스러운 인종들이다. 이 부류의 지식인은 사회악을 만들어내는 인종들이며 사회질서의 적이다. 정말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는 (러시아에 정보를 넘겨 준) 에스테라지가 아니라 이런 부류의 지식인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무정부주의자들, 사회학을 연구하는 형이상학자들이다. 이들은 <교만한 광인>들이다. 자신의 (편협한) 지식으로부터 범죄적인 자기만족을 취하는 사람들이며, 프랑스 군대의 장군들을 백치

로 취급하는 사람들이며, 우리 프랑스의 사회제도를 <바보 같은 제도>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며, 우리의 자랑스런 전통을 ‘불건전한 인습’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다.

반유태주의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가설이다. 수많은 인류학자, 민속지학자, 언어학자, 역사학자, 비평가들이 유태인의 사악함과 열등함에 관한 가설을 지지했다. 그 때문에 유태인이 사악하고 열등하다는 가설이 대중의 마인드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또한 프리메이슨, 신교도, 유태인에 대한 편견은 정치, 법, 교육, 행정의 영역들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향력과 지위에 대한 자연스럽고 정당한 반발일 뿐이다. 유태인들 자신들이 바로 반유태주의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프랑스 군은 프랑스의 안보, 번영,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스펜서 같은 개인주의자들은 군대에 대하여 지금과 같은 산업과 상업의 시대에는 야만적 시대착오에 불과한 낡은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전쟁과 외교야말로 여전히 ‘사회적 균형의 축’인 것이다.

국민 대중은 드레퓀스 재판 동안 ‘프랑스 군은 옛날처럼 오늘도 프랑스 그 자체이다. 우리의 군이 우리를 현재의 우리로 만들었다. 국민 단결이 형성되고 굳고 공고해진 것은 프랑스 군대가 흘린 피 덕분이다’ 라고 생각했다. 프랑스군의 구성은 진정으로 전국적이며, 그 정신은 존경스러우며, 그 규율은 인간적이다. 전국민이 군대에 복무하기 때문에, 군은 <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이기도 하다..

군을 위협하고 군이 대표하는 모든 것을 위협하는 개인주의와 무정부상태의 근원지는 이 ‘잡다한 지식인 집단’이다. 이들은, 누구도 그 출처를 확신할 수 없는 야릇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그 지식에 바탕하여, 인간의 도덕성, 국가의 생명, 사회의 이해관계에 관한 가장 민감한 문제들을 농단할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임하는 자들이다. 이들의 이 같은 생각은 아무 근거가 없는 위험한 착각이다. 특히 이들이, 자기 자신의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을 ‘과학’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과학적 방법, 지성의 귀족주의, 진리에 대한 존중’과 같은 거대 문구들은 ‘개인주의’의 자만을 숨기는 화려한 포장지일 뿐이다.

이들의 개인주의는 우리 시대 최악의 질병이다... 개인주의를 따르면, 각자는 자신만을 신뢰할 뿐이며, 자기 자신을 만물에 대한 최고 재판관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나아가 자신의 의견이 토론에 부쳐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게 된다. 이런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생물학자에게, 세상의 일이란 그의 과학적 ‘방법’ 앞에 결코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충고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는 코웃음을 칠 것이다! 이런 개인주의를 신봉하는 문헌학자에게 군사법정의 판결에 관해 의견을 나누지 말라! 그는 자신이, 정의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문헌학의 분야에서 플라우투스 운문을 세계에서 최초로 분석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판에, 육군 장군의 말을 듣고 자신의 ‘논리’를 굽힐 턱이 없지 않

은가!

이들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평생 동안 한 분야만 전공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는 수치스러운 일일 뿐이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참된 지식인>은 그냥 아무나처럼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법이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참된 지식인>은 니체가 주장한 초인, 혹은 법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 위에 있기 위해 태어난 <법 질서에 대한 대항자>이어야 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즉 어중이떠중이에 불과한 우리네 평범한 사람들은 <참된 지식인>에 대해 감탄하고 고마워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렇듯 지성주의와 개인주의가 나르시시즘에 빠지면 아무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우리 프랑스 사회가 벌써 이 지경에 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급속하게 그 방향으로 치달고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과거 백 년 동안 지식인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다. 이들은 앞으로도 더 큰 고통을 안겨 줄 힘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드레퓌스 사건에서 보이듯이, 이들의 자기도취, 자기만족은 참으로 반사회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브뤼네티에르는 학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제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은 결국 노골적인 반유대주의를 지지하고, 군사력을 앞세운 전쟁과 패권다툼이 ‘사회 균형의 축’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그는 개인주의를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프랑스 국가주의>와 <위대한 프랑스 군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 브뤼네티에르의 이야기는 결국 이것이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유대인들의 버르장머리를 잡아야 돼! 반유대주의는 정당한 거야! 유대 놈들은 자기 손으로 매를 벌은 거지. 그러니까 드레퓌스는 ‘악마의 섬’에서 죄수로 살다가 뉘저야 하는 거야! 그래! 이게 우리의 정의야.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야!”

중요한 사실은 브뤼네티에르의 주장이 한 명의 극단적 학자의 주장이었던 것이 아니라, 리버럴 혹은 좌파 지식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랑스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드레퓌스에 관한 정의를 옹호하는 지식인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까?

## • 뒤르켕 버전 (**version**) 개인주의의 파산

뒤르켕의 “개인주의와 지식인”은 브뤼네티에르의 글에 대한 반박이다. 사회학자 뒤르켕은 그 당시 유럽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뒤르켕의 글은 이 위대한 사상가조차 당시 유럽에서 이미 개인이 죽었다는 진실, 이미 패권적 국가주의(제국주의)가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다는 진실, 반유대주의는 패권적 국가주의와 직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전

혀 적시하고 있지 못 한 실정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그는 브뤼네티에르의 사악하고 노골적인 선동에 대해 현학적이고 무의미한 반박을 하고 있을 뿐이다.

브뤼네티에르는 사악하고 노골적으로 패권적 국가주의를 찬양하고 있으며 시대의 대세가 자신의 편이라는 점을 의기양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브뤼네티에르는 이런 식의 자신감에 바탕해서 드레퓌스 옹호자들에 대하여, “국가의 대의를 모르는 위험하고 천박한 개인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사악한 주장에 대해, “참된 개인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원칙을 내세워서 반박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진지하게 <참된 개인주의>라는 화두 자체를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뒤르켐이 제시하는 <참된 개인주의>는, 뒤르켐 자신이 인정한 바와 같이, 불완전한 개인주의, ‘되다만 개인주의’에 불과하다.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키워드 자체가 흔들린 것이다.

19세기 말 유럽에서 참된 개인주의를 들고 판다는 것은, 니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시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사상적 도라이’ 즉, 니체 자신의 말을 빌면, ‘시대도 없고 조국도 없는 떠돌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사상가가 되지 못 할 바에야 차라리 패권적 국가주의(제국주의)와 반유태주의를 맹렬하게 비판했어야 옳다. 그러나 뒤르켐은 양쪽 모두 하지 못 했다. 그가 제시하는 개인주의는, 조립하다 말은 합체 로봇 같을 뿐이며, 그의 글 속에는 식민지, 군국주의, 패권, 반유태주의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다. 국가 시스템이 이미 하나의 매우 사악한 <전쟁 기계>로 변해가고 있고 일반 국민이 이러한 흉측한 변형을 지지하고 있다는 참혹한 진실은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자는 망해도 3 대를 간다. 사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뒤르켐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 짧은 글 안에는 개인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로부터 110년도 더 지난 한국에서 개인주의에 관해 생각할 때, 이 글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뒤르켐은 개인주의를 두 종류로 나눈다. 하나는 공리주의적 개인주의이다. 마이클 샌델은 이러한 개인주의에 대해 ‘고삐 풀린 자아’(Unencumbered Self)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기 자신의 자유와 권리와 웰빙만 주장할 뿐 공동체 차원의 진실에 관해서는 마음을 담은 사람이다. 뒤르켐이 말하는 다른 한 종류의 개인주의는 정신주의적(idealistic) 개인주의, 곧 칸트의 개인주의이다. 칸트 사상의 핵심은 ‘이성을 갖춘 자아의 존엄성’이다. 자아, 즉 개인은 <이성의 주체>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사상이다. 칸트는 <이성의 해방>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칸트의 철학은 결국 구체적인, 살아 있는 개인이 아니라, <추상적 개인>과 <이성의 절대화>로 귀결된다. <추상적 개인>은 보편성에 도달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다. 자기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불편부당한 보편적 이성의 입장에 따라 판단하는 개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개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십억 명 중에 하나쯤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개인을 마치 ‘사람의 참모습’인 듯 이야기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일이 초래될 수 있다. “불편부당한 보편적 이성”이라는 이름 아래 끔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초반에 수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체주의의 철학적 기본 태도였다.

뒤르켐이 바이블처럼 이야기하는 칸트의 개인주의는 불완전할 뿐 아니라 매우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뒤르켐 자신이, 이 글에서, 이 불완전성을 어렴풋이 인정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개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훌륭한 자아란 무엇인가?”, “훌륭한 개인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자기 나름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즉 윤리(ethic, virtue)가 불꽃 튀기는 경쟁을 벌이는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한심하고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개인의 해방, 개인의 자유는 “무엇을 위한 해방이고 자유인가?”라는 화두와 함께 할 때만 그 꽃을 피울 수 있다. ‘개인됨’(individuality)이라는 비즈니스는 유쾌한 장난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무게와 의미가 걸려있는 심각한 비즈니스이다.

비틀즈는 ‘에스터데이’에서 “사랑은 불장난이 아니다”라고 노래 불렀다. 여기에는 마땅히 한 마디가 더해져야 한다. Love is not an easy game to play?neither is individuality!

---

[1] 최초의 시민혁명은 미국 독립전쟁이지만, 미국을 만들어낸 사상은 유럽에서 나왔다. (역자)

[2] 별다른 이유 없이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 (ghetto) 를 습격하여 방화, 약탈, 강간, 구타, 살인을 자행하는 이벤트. 특히 독일, 동유럽, 러시아에서 심했다. (역자)

[3] 이하의 글은 Steven Lukes 의 ‘Durkheim's 'Individualism and the Intellectuals'’ 에 기초했다 (역자)

# 본 문

< 번역 : 권 하 연 >

지난 6 개월 간 우리 프랑스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분열시켜 왔던 문제가 이제 모습을 바꾸는 과정에 있다. 원래 단순한 사실상의 문제였던 것이 점점 더 일반적인 문제가 되었다. 최근 한 유명한 문필가가 이 문제에 개입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sup>[1]</sup> 지루한 반복의 진창에 빠졌던 논쟁을 큰 팡파르와 함께 되살릴 순간이 도래했다고 느꼈던 것 같다.

바로 이 때문에 이 문필가는 사실에 대한 토론으로 돌아가는 대신, 단번에 원칙의 차원으로 도약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 문필가가 공격하고 있는 대상은, “지식인들”<sup>[2]</sup>의 정신상태, 그들이 고수하는 기본 사상이지, 그들 주장의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다. 이 문필가에 따르면, 이들이 “육군 장군의 말 앞에서 자신의 논리를 굽히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이는 분명 그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다. 그들이 자신의 이성을 권위 위에 두기 때문이란 다. 그들에게는 개인의 권리가 양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란 다.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체제와 대립하기로 결심하게 한 것은 그들의 개인주의이란다. 그래서 이 문필가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고 이와 유사한 불화가 거듭되는 것을 막으려면, 전력을 다해 이 개인주의와 싸워야 한다. 내적 분열의 이 거대한 근원을 영원히 말려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이 (개인주의라 불리는) 공공의 재앙에 대해, 현 시대의 이 거대한 질병에 대해 진정한 십자군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

## ● 공리주의적 개인주의와 정신주의적 개인주의

우리는 논쟁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우리 역시,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쟁이 더 근원적인 불일치를 피상적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했다고 믿는다. 우리 역시, 의견이 사실의 문제를 놓고 갈렸다가 보다는 원칙의 문제를 놓고 갈렸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오고 갔던 세세한 주장은 한편으로 치워버리자. 이 사건 자체는 잊어버리자. 우리가 목격했던 서글픈 광경도 잊어버리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현재의 사태를 까마득히 넘어선 지평에 있다. 따라서 드레퓌스 사건 자체와는 반드

시 구분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 먼저 , 한 가지 모호한 점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

개인주의를 더 편하게 공격하기 위해 , 브뤼네티에르 같은 사람들은 , 개인주의를 , 스펜서와 경제학자들의 협소한 공리주의 , 혹은 공리주의적 이기주의라고 주장한다 . 얼마나 편리한 수법인가 ! 상대방을 , 사회를 생산과 교환의 거대 장치로 설명하는 도식적 개념을 지지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한 후 , 이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모습에 대해 “ 깊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천박한 생각을 하는 자들 ” 이라고 탄핵하는 것은 정말 쉽다 .

왜냐하면 개인의 이해보다 우월한 이해가 존재하지 않고서는 모든 공동체적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 “ 공리주의적 개인주의와 같은 이론은 무정부주의적이다 ” 라는 명제보다 더 당연한 말은 없다 . 우리는 이 명제에 완전히 동의한다 .

그러나 브뤼네티에르 같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 이런 형태의 개인주의가 마치 유일하게 존재하는 개인주의 , 나아가 유일하게 성립 가능한 개인주의인 것처럼 주장한다는 점이다 . 정반대이다 . 이러한 개인주의는 점점 더 드물어지고 점점 더 예외적으로 되고 있다 . 스펜서의 철학은 도덕적으로 너무나 빈곤한 나머지 , 더 이상 어떤 지지자도 얻을 희망이 없다 . 경제학자들은 어떠한가 ? 전에는 이 이론의 단순함에 매혹됐지만 , 이제는 자기들의 엄밀함을 누그러뜨리고 더 관대한 감정에 스스로를 열 필요성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 프랑스에서 여전히 완고하게 공리주의적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몰리나리<sup>[3]</sup> 정도 밖에 없다 . 나는 그가 우리 시대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사실 개인주의에 오직 공리주의적 버전 (version) 밖에 없다면 , 스스로 조용히 자연사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일 게다 . 정말 이러한 상황이라면 브뤼네티에르 같은 사람들이 개인주의를 향해 요란한 전쟁을 선포할 이유 역시 없는 아닌가 ?

그러나 쉽게 무찌를 수 없는 다른 종류의 개인주의가 존재한다 . 이 개인주의는 지난 세기에 압도적 다수의 사상가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 이것은 칸트와 루소의 개인주의이며 , 정신주의자들 (idealist) 의 개인주의이다 .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이 다소 표현하려고 했던 개인주의 , 현재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고 , 도덕적 교리문답의 기초가 된 개인주의이다 .

브뤼네티에르 같은 사람들은 공리주의적 개인주의에 대한 공격을 이용하여 , 정신주의자들의 개인주의에 일격을 가하고 싶어 한다 . 그러나 이 두 가지 종류의 개인주의는 근원적으로 다르다 . 하나에 적용되는 비판이 다른 것에 맞을 수는 없다 . 정신주의적 개인주의는 개인적 이익을 행위의 목적으로 삼기는커녕 , 모든 개인적 동기를 악의 원천이라고 본다 . 칸트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가 내가 처한 특정한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 추상적인 나 > 의 인간성에 좌우될 때만 , 나는 적절히 행동했음을 확신할 수 있다 . 반대로 나의 행위가

나의 상황 , 나의 사회적 조건 , 나의 계급적 이해 , 나의 강한 열망 등에 의해서만 논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 나의 행위는 나쁜 것이다 . 바로 이 때문에 , 어떤 행위가 그 행위자의 개별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 , 명백히 어리석은 논리 말고는 그 행위를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경우 , 우리가 그 행위를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루소도 비슷하다 . 루소 사상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사회계약의 기초인 일반의지가 결코 오류가 없다면 , 그리고 일반의지가 완벽한 정의의 참된 표현이라면 , 그것은 일반의지가 모든 개별 의지들의 합이기 때문이다 . 개인적 고려란 서로 다르며 심지어 서로 적대적이기까지 하므로 , 일반 의지에 의해 비로소 서로를 중립화하고 상쇄하는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 그러므로 일반의지는 모든 개인적 고려가 제거된 일종의 비개인적 평균이다 .<sup>[4]</sup>

칸트와 루소의 경우 , 유일한 도덕적 행위 방식은 모든 인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식 , 즉 <인간 일반> 이라는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행위 방식인 것이다 .

### • 정신주의적 개인주의는 개인을 초월한다

공리주의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웰빙과 이익을 신격화하여 이기주의에 매몰된 채 자아를 숭배한다 . 반면 칸트와 루소의 개인주의는 이러한 공리주의의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 칸트와 루소와 같은 사상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의무는 우리의 ( 보편적 ) 인간성이 요구하는 것 , 우리가 동료 인간들과 공유하는 것만을 추구하기 위해 , 우리와 개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 , 우리의 경험적 개별성에서 파생하는 모든 것을 무시하는 데 있다 .

칸트와 루소가 말하는 개인주의의 의무에 관한 이상은 공리주의적 수준을 너무나 높이 뛰어넘는다 . 칸트와 루소의 이상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상은 완전히 종교성을 띤 것이 된다 . 이 이상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인간 일반> 을 체현하는 <인간적 개인> 이며 , 그 정의 ( 定義 ) 는 선악을 가르치는 시금석과 같다 . 이 <인간적 개인> 은 그야말로 종교적 의미에서 신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

<인간적 개인>은 모든 시대의 교회가 신들에게 부여하는 초월적 위엄을 지닌다 . <인간적

개인>은, 신성한 것들 주위에 허공을 창조하여 만인이 내미는 추한 손길에서 신성한 것들을 떼어내는 신비로운 속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인간적 개인>에게 주어지는 존경은 바로 이 원천에서 온다. 누구라도 한 인간의 삶, 한 인간의 자유, 한 인간의 명예를 침해하려고 시도할 때, 그는 우리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 신자가 자신의 우상이 더럽혀질 때 경험하는 것과 모든 면에서 유사한 공포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윤리는 그저 위생 규율이거나 현명한 경제 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경배자인 동시에 하나님인 종교이다.

그러나 이 종교는 개인주의적이다. 이 종교가 인간을 대상으로 삼고, 인간은 원래 개인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비타협적인 개인주의를 표방하는 사교체계는 없다. 개인이 성스러운 대상의 반열에 놓이기에, 개인의 권리가 이보다 더 정열적으로 긍정되는 경우는 없다. 개인이 외부의 침해로부터 이보다 더 예민하게 보호 받는 경우는 없다. 공리(功利)의 독트린은 자신의 근본적인 전제를 어기지 않고도 모든 종류의 타협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은 최대 다수의 이해가 요구한다면 개인의 자유가 유예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일시적인 이해 바깥에, 모든 일시적인 이해 위에 놓이는 원칙은 어떤 타협도 가능하지 않다. 개인의 권리가 국가의 권리 위에 있을 때, 개인에 대한 공격을 변명할 수 있는 국가의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개인주의가 그 자체로서 공동체의 도덕을 해체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면, 개인주의에 반사회적 본질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의 중대함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논쟁의 근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18세기 자유주의는 단순히 고상한 응접실용 이론이나 철학적 구성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의 사실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제도와 관습에 밑바닥까지 꺾고 들어왔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와 뒤섞였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와 동시에 우리의 도덕적 조직 전체를 개조해야 할 것이다.

- 정신주의적 개인주의는 집단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신주의적 개인주의 이론가들이 개인의 권리에 못지않게 공동체의 권리에도 민감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윤리와 법의 초개인적 성격을 칸트보다 더 단호하게 주장한 사람은 없다. 그는 윤리와 법을 인간이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일종의 계명으로 만들었다. 계명은 계명이기에 아무 토론 없이 복종해야 한다.

칸트에 대해서는 때때로 이성의 자율성을 과장했다는 비난이 있다. 그러나 그는 이성을 찬양했을 뿐 아니라, 신앙과 복종이라는 비이성적 행동을 자기 윤리학의 근저에 두었다. 더욱이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무엇을 낳았는지에 의해, 즉 그것이 낳은 또 다른

이론의 정신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

칸트주의는 사회주의로 총만해 있는 피히테의 윤리학을 낳았고 , 마르크스가 그 사도였던 헤겔의 철학을 낳았다 . 루소에 관한 한 , 우리는 그의 개인주의가 그의 권위주의적 사회관에 의해 보충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 프랑스 대혁명 때의 사람들은 루소의 사상을 따랐기 때문에 , 유명한 권리선언을 선포하는 와중에도 프랑스를 분할 불가능하고 집중화된 나라로 만들었다 . 아마 우리는 프랑스 대혁명의 과업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 국가적 집중화를 실현한 거대한 에너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 또한 이 정신주의자들은 공리주의 윤리학에 철저히 반대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이 정신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 공리주의가 < 사회적 필연 > 이라는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

칸트와 루소 사상에 있어서 , 한편으로는 “ 이성을 갖춘 자아의 자율성 ” 이 존중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 공동체의 필연 ” 이 강조되는 것은 , 모순을 내재하고 있는 절충주의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 우리는 이 사상가들이 자기 사상 체계의 이 두 측면을 융합시키려는 방식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 루소처럼 개인을 , 스스로 충분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충분해야 하는 일종의 절대자로 만든다면 , 시민상태의 수립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기는 분명히 어렵다 .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러저러한 정신주의적 개인주의 철학자가 이 두 경향의 조화됨을 보이는 데 성공하느냐 않느냐가 아니라 , 과연 이 두 경향이 그 자체로 조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 이런저런 철학자가 두 경향의 통일성을 수립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는 틀릴 수도 있지만 , 이 통일성 자체는 진짜일 수도 있다 . 그리고 두 경향이 동일한 사상가들에게서 일반적으로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만 보아도 벌써 두 경향이 함께 간다는 것만은 믿을 수 있다 . 따라서 결론은 , 이 두 경향은 단일한 사회상태에 의존해 있는 것이며 , 심중팔구 이 사회상태의 상이한 측면일 뿐이라는 것이다 .

사실 우리가 정신주의적 개인주의를 그 대립물 , 즉 공리주의적 개인주의와 뒤섞지 않는다면 , 이 모든 모순은 마술처럼 사라진다 . 이전의 모든 종교를 대체하는 이 < 인간성의 종교 > 는 옛 종교들만큼 강하게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아무런 손색이 없다 . 이 종교는 우리의 본능에 아첨하는 데 만족하기는커녕 , 본성을 무한히 능가하는 이상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개인의 이성은 현명하고 순수한 이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 모든 개인적 동기를 제거하고 그 자신의 행동을 추상적으로 입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개인의 존엄성이 그의 개인적 특성들 ,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시키는 특색들에서 나온다면 , 이는 그를 일종의 도덕적 이기주의 속으로 가두어서 어떤 연대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 .

그러나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 이성으로부터가 아니라, 더 높은 원천, 자신이 다른 모든 인간들과 공유하는 원천으로부터 존엄성을 부여 받는다. 한 개인이 종교적 차원의 존경을 받

을 권리가 있다면, 이는 그에게 <보편적 인간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보편적 인간성>이야말로 존경 받을 가치가 있는 것, 신성한 것이다. 당연히 이 <보편적 인간성>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 인간성은 모든 동료 인간들 사이에 퍼져 있으며, 따라서 한 개인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인간성을 자기 행동의 목표로 택할 수 없다. 그는 숭배받는 자임과 동시에 숭배하는 자이지만, 이 때 숭배받는 것은 한 개인이라는 특수한 존재, 그 개인의 이름을 지닌 특수한 존재인 것이 아니다. 숭배는, <인간적 개인>에게 주어지며, <인간적 개인>이 어디에서 발견되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건 주어진다. 따라서 비개인적이고 익명적인 이 목표는 모든 개별적 정신들 위로 높이 날아오르며, 따라서, 모든 개인의 정신이 모두 모인 집결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목표를 생생하게 느끼지 못 하는 것일까? 이 목표가 “인간 차원의 목표” 이기 때문인 것일까? 아니다.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이 목표에 공감하고, 이 목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이 공동의 믿음의 대상이 개인의 본성과 무관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요컨대 이렇게 이해된 개인주의는 결국 자아의 찬양이 아니라 <개인 일반>의 찬양이다. 그것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든 것에 대한 공감, 모든 고통, 모든 인간적 불행에 대한 더 넓은 연민, 이것들과 싸우고 이것들을 완화시키려는 더 뜨거운 욕구, 정의에 대한 더 큰 갈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공감, 연민, 욕구, 갈망이 바로, 선의를 지닌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서로 소통하도록 만드는 근원적인 에너지 아닌가?

이러한 정신주의자의 개인주의 외에 다른 버전의 개인주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그들의 이기주의를 위장하고 사회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더 쉽게 회피하는 포장지로서 “개인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종교적 위선자들의 거짓말이 종교를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듯이, “개인주의”라는 단어를 사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풍조가 개인주의를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 개인의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지평>에서 조화될 수 있다

참된 개인주의는 <보편적 인간>에 관한 인간 숭배이다. 이 인간 숭배는 이성의 자율성을 일차적인 교조로 삼고 사상의 자유를 일차적인 의례로 삼는다. 따라서 “모든 의견들이 자유롭다면 무슨 기적으로 이 의견들이 조화를 이루는가?”라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의견들이 서로를 알지 못한 채, 서로를 고려하지 않고 형성된다면, 어떻게 응집될 수 있겠는가? 서로 응집될 수 없다면, 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지적 도덕적 무정부상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문제 제기가, 항상 논박되어도 항상 되살아나는 주장이다. 이성의 영원한 적들은 그 무엇에도 좌절되지 않는 인내심으로 주기적으로 이 주장을 되살린다. 인간 정신이 일시적으로 나태해져 이 적들의 재량에 맡겨질 때마다 이 주장이 튀어 나온다. 그렇다. 개인주의가 어떤 (엘리트주의적) 지성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상의 자유는 자유의 으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사상의 자유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어리석은 심취로 귀결되어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의 감정 속에 가두고 지성들 사이에 간극을 낳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단 말인가? 사상의 자유가 요구하는 것은 각 개인이 그가 정당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알 권리이다. 사상의 자유는 결코 어떤 무능할 권리를 신성화하지 않는다. 내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문제와 관련하여, 더 유능한 견해를 따르는 것은 나의 지적 독립성을 전혀 해치지 않는다. 학자들의 협력은 이 상호 존경 덕분에만 가능하다. 모든 학문은 끊임없이 인접 분과들로부터 명제들을 빌려 더 이상의 검증 없이 받아들인다. 문제는, 나의 이성이 다른 사람의 이성 앞에 머리를 숙이기 전에, 왜 머리를 숙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권위에 대한 존중은, 이 권위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한 합리주의와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한 의견에 규합시키려 할 때, “사회는 상호 희생 없이는, 복종의 정신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진부한 구호로서는 지식인을 납득시킬 수 없다. 지식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면, 이는 여전히 이 특수한 경우에 그들의 한계, 그들의 무능함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어떤 문제가 흔한 일반적 판단에 속하는 문제라면, 자신의 의견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순종은 모든 이성 상반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는 지식인의 의무 상반되는 것이다.

법정이 피고의 변호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를 아는 데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양식 있는 모든 사람이 유능하게 행할 수 있고 누구도 무관심해서는 안 될 실천 윤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최근 (드레퓔스 사건에서처럼) 상당수의 예술가들과 학자들이 그 적법성이 의심스러워 보이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난 화학자나 언어학자, 철학자나 역사학자로서 어떤 특권이 있고, 지금 판결되고 있는 일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드레퓔스 사건이)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이성 상반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이 권리에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다만 그들이 직업상, 이 권리를 마음에 더 깊이 새기기 때문이다. 과학적 방법의 실천으로 인해, 그들은 자기가 사실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판단을

유보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 그들이 군중의 열광과 권위의 위신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 개인주의 윤리에 바탕한 휴머니즘이 새로운 종교가 되어야 한다

개인주의는 무정부주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이 나라의 도덕적 통일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신념 체계이다 .

오늘날 우리는 종종 “ 종교만이 공동체의 도덕과 조화를 낳을 수 있다 ” 는 이야기를 듣는다 . 요즘 시대의 예언가들이 신비적인 교의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이 명제는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뻔한 소리에 불과하다 .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종교가 반드시 원래적 의미의 상징과 의례 혹은 사원과 성직자를 수반하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이 모든 외적 장치는 피상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

본질적으로 종교는 특별한 권위를 가진 집합적 신념과 관습의 체계이다 . 한 국민 전체가 어떤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 즉시 , 이 목표는 이 만장일치의 지지 때문에 일종의 도덕적 패권을 획득하며 , 이 패권을 통해 사적 목표들보다 훨씬 위로 솟아올라 종교적 성격을 얻게 된다 . 다른 관점에서 볼 때 ,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일정한 지적 / 도덕적 공동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함께 뭉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럼에도 “ 공동체에는 , 종교와 같은 , 도덕과 조화가 필요하다 ” 라는 뻔한 명제는 ,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 하고 있다 . 왜냐하면 종교가 어떤 의미에서 불가결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 종교가 변한다는 것 , 어제의 종교가 내일의 종교로 될 수 없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오늘의 종교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

이제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결론은 , < 개인주의 윤리 > 로 나타나는 < 인간성의 종교 > 야말로 유일하게 가능한 종교라는 것이다 . 공동체의 집단적 정서는 앞으로 어디로 번어가게 될 것인가 ?

사회가 더 커져 더 광대한 영토 위로 확장됨에 따라 , 전통과 관습은 상황의 다양성과 정황의 유동성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적 편차에 더 이상 크게 저항하지 않는 , 유연하고 가변적인 상태로 스스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 역으로 , 전통과 관습이 자유주의적으로 바뀌면 , 개인적 편차는 제한을 덜 받기에 더욱 더 확대된다 . 즉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세상이 된다 .

이와 동시에 분업이 더 고도화된 결과 ,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기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을 향하게 된다 . 이때 각 개인의 방향과 전문 분야는 세계의 다양한 측면 중 하나를 반영하게

된다 . 이 상태에서 , 개인은 서로 다른 생각과 의식을 가지게 된다 .

따라서 우리는 단일한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인간성 이외에 , 그리고 < 인간적 개인 > 일반의 구성적 속성 이외에 어떤 공통점도 가지지 않는 상태를 향해 점차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 지금 이미 이 상태에 거의 도달해 있다 .

따라서 이 < 인간적 개인 > 이라는 개념은 , 민족적 기질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 또한 개인의 의견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더라도 , 변함없이 그리고 개인과 무관하게 견지될 수 있는 유일한 개념이다 . 그리고 이 개념이 일깨우는 감정은 거의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일 것이다 .

사람의 정신적 소통은 더 이상 특수한 의례와 편견에 기초할 수 없게 되었다 . 전통적 의례와 편견은 세상의 자연스러운 경과 속에서 용해되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인간 그 자체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랑하고 찬미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 바로 이렇게 해서 인간은 인간에게 신이 되었고 , 바로 이 때문에 인간은 그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고는 더 이상 다른 신들을 창조할 수 없다 .

또 우리 각자가 인간성의 일정 부분을 체현하고 있기 때문에 , 각각의 개인적 의식은 성스러운 것을 함유하며 , 따라서 타인에게 신성불가침하게 여겨지는 성격을 띠게 된다 . 여기에 모든 개인주의가 깃들여 있다 . 바로 이것이 개인주의를 필수적인 독트린하게 하는 것이다 . 왜냐하면 개인주의의 전진을 멈추기 위해서는 , 사람들이 점점 더 서로 구분되게 되는 현대 문명의 경향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 그들의 개인성을 동질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 그들을 전 시대의 낡은 순응주의로 되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 그 결과 사회가 더더욱 확장되고 더더욱 거대해지는 경향을 봉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 또한 쉬지 않고 진화하고 있는 분업 체계의 발전을 멈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 바람직하든 그렇지 않든 , 이와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 .

## • 개인주의와 싸워도 개인주의가 남을 뿐이다

더욱이 이 브뤼네티에르 같은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경멸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무엇을 권유하고 있는가 ? 그들은 우리를 향해 , 기독교 도덕의 장점을 칭송하고 , 기독교 신앙과 도덕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람들은 기독교의 독창성이 바로 이 개인주의 정신의 놀라운 발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 고대 도시국가의 종교가 온통 , 영적 요소가 없는 피상적 행위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반면 , 기독교는 내적 믿음 속에서 , 개인에 대한 개인적 확신 속에서 본질적인 경건 상태를 표현했다 . 기독교는 다른 무엇보다도 , 행동의 도덕적 가치가 그 의도에 따라 측정되어야 함을 가르쳤다 . 의도는 , 바로 그 본질상 모든 외적 판단을 피하며 행위자만이 정당하

게 평가할 수 있는, 근원적으로 내적인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삶의 중심은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옮겨졌으며, 그리하여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권적 재판관으로 격상되어, 그 자신과 그의 하느님에게만 책임을 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결정적 분리를 완성시키는 가운데, 그리고 세계를 인간들의 논쟁에 내맡기는 가운데, 과학과 사상의 자유를 위한 길을 열었다. 이것이 왜 기독교 사회가 수립되던 날부터 과학적 정신이 그렇게 급속한 진보를 이루었는지를 설명한다.

기독교의 본질이 개인주의를 포함하고 있는 마당에 개인주의에 대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싸워야 할 악독한 질병이다. 개인주의 대신에 기독교 도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다니! 개인주의와 싸워도 우리는 개인주의로 되돌아갈 뿐이다. 개인주의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개인주의를 개인주의 자체에 대립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만큼의 개인주의가 적절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며, (기독교의 경우처럼) 개인주의를 종교적 포장 아래 감추는 것이 과연 이익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제, 개인주의가 우리가 듣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라면, 그저 개인주의의 참된 본질을 (기독교의 경우처럼) 은유의 도움으로 숨긴다고 개인주의가 어떻게 무해하고 유익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이제 개인주의를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보자. 기독교라는 이 제한된 개인주의가 18세기 전에 필요했다면, 오늘날에는 더 완전히 발전된 개인주의가 필수불가결할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주의 윤리를 기독교 도덕의 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기묘한 잘못이다. 정반대이다. 개인주의 윤리는 기독교 도덕에서 나왔다. 우리가 개인주의 윤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과거를 지속시키는 것일 뿐이다.

## ● 개인주의를 공격하면 공동체가 붕괴한다

이제까지 왜 사람들이 개인주의 신조를 위협할 소지가 있는 모든 것에 맞서 완강히 저항해야겠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 보았다. 개인의 권리에 반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저항하는 이유는, (드레퓌스 같은) 희생자에 대한 동정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다. 이와 유사한 부정의를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만도 아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시도를 응징하지 않고 내버려둘 때마다 나라의 존재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정말, 이러한 시도가 자유롭게 일어나 우리의 감정을 범할 때마다, 우리의 감정은 약화된다. 그리고 이 감정은 우리가 공동으로 지닌 유일한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약화될 때

마다 사회의 응집력이 깨진다 . 종교가 신성모독을 관용한다면 그것은 인간 정신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

개인교 ( 個人敎 ) 역시 , 브뤼네티에르 같은 사람의 조롱을 받고 자신의 권위가 허물어지게 내버려둘 수 없다 . 그리고 개인주의는 우리 모두를 서로 묶는 유일한 끈이기 때문에 , 이처럼 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사회의 해체가 시작된다 . 따라서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개인주의자는 ,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익을 옹호하는 셈이다 . 왜냐하면 그는 , 나라의 혼 그 자체인 집단적 관념들과 감정들의 마지막 광맥인 건강한 개인주의가 형편없이 고갈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 개인주의의 옹호자들이 나라에 행하는 봉사는 고대 로마인이 무모한 혁신가들에 맞서 전통적인 의례를 옹호함으로써 자신의 도시에 행한 봉사와 똑같다 .

그리고 개인주의의 대의가 진정으로 국가 전체에 퍼져 있는 나라가 있다면 , 그것은 바로 우리 프랑스이다 . 왜냐하면 다른 어떤 나라도 나라의 운명과 이 관념들의 운명 사이에 이처럼 긴밀한 결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우리는 이 관념들을 바탕으로 근대적 국가 제도를 만들어 왔으며 , 다른 민족들은 바로 우리에게서 이 관념들을 받아들였다 . 바로 이 때문에 , 우리는 지금도 이 관념들의 가장 권위 있는 대표자로 간주된다 .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관념들을 부인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 세계인의 눈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것이며 , 진정한 도덕적 자살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 얼마 전 , “ 모든 사람이 국가 안보에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공공 행정의 원활한 작동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 이 개인주의 원칙들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아마도 편하지 않겠는가 ? ” 라는 이슈가 제기된 적이 있었다 . 우리는 이 이율배반이 정말 이렇게 첨예한 형태로 제기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 그러나 아무튼 이 두 가지 악 사이에서 정말 선택을 해야 한다면 , 오늘날까지 우리의 존재 이유였던 ‘ 개인의 자유와 권리 ’ 를 희생시키는 것은 최악의 선택일 것이다 . 공공 생활을 위한 국가 기관은 ,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도구이며 수단일 뿐이다 . 목적이 없어진다면 수단을 그렇게 애써 유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삶에 존엄성을 주는 모든 것을 이렇게 슬프게 포기하려고 하다니 ! 다만 살기 위해서 , 삶의 이유를 포기하고 단지 살아 있기 위해서 !

개인주의를 공격하는 사상 운동은 무식과 경박함에서 나왔을 게다 .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 “ 개인주의 ” 가 “ 개인적 ” 감정 , 즉 이기주의적 감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믿음이 초래되었다 . 천만에 !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 모든 다른 종교처럼 개인교 ( 個人敎 ) 도 사회적으로 세워졌다 . 개인이라는 존재를 하나의 이상으로 만들어 , 우리의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동의 목표로 세우는 것은 바로 사회이다 . 이 이상을 대신할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 이 이상을 뺀 것은 ,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반대하는 < 도덕적 무정부상태 > 로 전락하는 지름길이 된다 . [5]

- 개인주의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하지만 우리는 18 세기의 개인주의 사상을 거의 완벽하고 결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 그것을 거의 수정이 없이 유지하려는 실수를 저질러 왔다 . 그것은 한 세기 전에는 충분했지만 , 이제 확장되고 완성될 필요가 있다 .

18 세기의 사상은 개인주의를 가장 소극적으로만 표현한다 . 우리의 아버지들은 개인의 발전을 방해하는 정치적 족쇄로부터 개인을 자유롭게 하는 과제만을 떠맡았다 . 그리하여 그들은 생각할 자유 , 쓸 자유 , 투표할 자유를 일차적인 쟁취 과제의 목록 속에 넣었으며 , 이 해방은 분명 향후의 모든 진보의 필요조건이었다 .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향한 투쟁의 열기에 완전히 휩쓸려 , 그 나머지를 보지 못하고 , 당면의 목표를 일종의 최종적 목표로 생각하는 데 그쳤다 . 그러나 정치적 자유는 수단일 뿐 , 목표가 아니다 . 정치적 자유의 가치는 그것이 이용되는 방식에 있다 . 정치적 자유가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목적에 복무하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으며 , 도리어 위험한 것이 된다 . 정치적 자유는 전쟁 무기이다 . 이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사용법을 몰라 전투를 유익하게 이끌지 못한다면 , 이 무기는 곧 그들에게로 향하고 말 것이다 .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정치적 자유가 일정한 불명예에 빠지게 된 이유이다 . 우리 세대 사람들은 20 년 전에 마침내 우리의 열정을 제약한 마지막 장벽의 붕괴<sup>[6]</sup>를 보았을 때 , 우리가 얼마나 열광했는지 기억하고 있다 . 아아 ! 그러나 환멸이 재빨리 뒤따랐다 .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게 얻은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을 곧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 우리에게 이 자유를 얻어다 준 사람들은 이 자유를 이용하여 서로를 발기발기 찢어버리기만 했다 .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슬픔과 낙심의 바람이 불어 나날이 세지고 결국 최소한의 저항 정신까지 좌절시키고 말았다고 느꼈다 .

따라서 우리는 ‘ 정치적 자유 ’ 라는 소극적인 이상에 머무를 수 없다 . 우리는 우리가 성취한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결과를 넘어서야 한다 . 우리가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행위 수단의 사용법을 끝내 배우지 못한다면 , 자유는 아무 가치없는 것으로 되고 말 것이다 .

따라서 우리의 자유를 이용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찾자 .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자 . 아직도 개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사회적 기구를 더 부드럽게 작동하게 하자 . 개인의 능력을 방해 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 . 그리하여 마침내 “각인에게 일한 만큼”이라는 저 유명한 권고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

나아가 자유란 일반적으로 그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는 도구임을 인식하자 .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의 아이들을 훈련시키자 . 모든 도덕 교육은 이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 . 물론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할 문제는 적지 않다 . 하지만 우리가 이미 달성한 목표를 넘어 이제부터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해도 , 새로운 목표를 더 잘 추구하기 위해 이미 달성한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무분별한 일일 것이다 . 왜냐하면 미래의 진보는 이미 성취한 진보 덕분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것은 개인주의를 완성 , 확장 , 조직하는 문제이지 , 개인주의를 제약하고 싸워 물리치는 문제가 아니다 . 그것은 이성적 능력을 이용하는 문제이지 , 이성적 능력에 침묵을 강요하는 문제가 아니다 . 이성적 능력만이 우리를 현재의 어려움에서 빠져 나오게 할 수 있다 . 우리는 다른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

이 상황에서 우리의 의무는 분명하지 않은가 ? 지난 세기에 성취한 도덕적 변화들이 이로운 것이었음을 , 아니면 최소한 필요한 것이었음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 한 사람을 나머지 사람으로부터 구분짓는 유니크한 차이들을 잊어서는 안 되며 , 이미 획득한 진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합쳐야 한다 .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 우리가 다시 불모의 무기력에 빠져 지금처럼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경험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은 내일의 과제이다 . 오늘 다른 모든 것 앞에 와야 할 급선무는 우리의 도덕적 유산을 지키는 것이다 . 이것이 일단 안전하게 되면 , 우리는 개인주의라는 유산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이 공동의 위험 앞에서 적어도 우리의 무기력에서 떨쳐 나와 행동 본능을 되찾자 .

사실 우리는 이미 전국에서 선도적 자각이 일어나 선의의 사람들이 서로를 찾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 누군가 그들을 한데 묶어 전투로 이끈다면 , 승리가 아주 멀지는 않을 것이다 . 왜냐하면 우리의 적들이 강한 것은 단지 우리 자신이 약해서일 뿐이기 때문이다 . 적들은 거대한 혁명은 물론 거대한 반동도 실행할 능력이 없다 . 사람들을 저항할 수 없이 이끄는 심오한 신념도 풍부한 정신적 자극도 갖추고 있지 않다 .

우리는 물론 적들의 진실성을 의심할 생각이 없다 ! 그러나 적들의 확신이 얼마나 엉터리로 급조된 것인지 , 너무나 명백하지 않은가 ! 적들은 분노와 열정이 넘쳐흐르는 사도들도 아니고 , 우리에게 연구와 성찰의 산물을 가져다 주는 학자들도 아니다 . 적들은 흥미 있는 주제에 유혹된 문필가들이다 .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안다면 , 이 문학예술 애호가들의 재주가 지속적으로 대중을 휘어잡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 이렇게 약한 적과의 싸움에서 , 이성이 한 순간이나마 패배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

---

[1] Ferdinand Bruneti e re, “ Apr e s le proc e s , ” ( 재판 후에 ) Revue des deux mondes, 1898 년 3 월 15 일 .

[2] 이 편리한 말에 부적절한 의미가 아주 악의적으로 덧붙여지고 있는데 , 이 말이 원래 그런 의미를 결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나가는 길에 지적하기

로 하자 . 지식인은 지성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 지성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적 기능은 없다 . 그러나 지성이 수단인 동시에 목적 , 동인 인 동시에 목표가 되는 사회적 기능들은 있다 . 이러한 사회적 기능들에서는 지성이 지성을 확대하기 위해 쓰인다 . 즉 새로운 지식 , 생각 , 지각으로 지성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쓰인다 . 따라서 지성은 이 전문직 전체 ( 예술과 학문 ) 를 형성하며 , 자신을 이 전문직에 바치는 사람이 아주 당연하게도 지식인이라 불리게 된 것은 이 특수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

[3] Gustave de Molinari. 1819 년 3 월 3 일 출생 , 1912 년 1 월 28 일 사망 . 프랑스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자 . 법과 국방 분야에서 시장이 국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무정부 자본주의 (anarcho-capitalism) 의 시조로 여겨지기도 한다 . ( 역자 )

[4] Rousseau, 사회계약론 , 제 1 권 그리고 제 2 권 제 3 장을 보라 .

[5] 이렇게 해서 , “개인은 사회의 원인이라기보다 사회의 산물”이라고 말하면서도 개인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무 모순 없이 가능해진다 . 이는 개인주의

자체 가 모든 도덕과 모든 종교처럼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 개인은 그를 성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도덕적 믿음까지 사회로부터 받는다 . 이것이 바로 칸트와 루 소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 그들은 그들의 개인주의 윤리를 사회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립된 개인에서 끌어내기를 원했다 . 이 작업은 불가능했으며 , 여기에서 그들의 사상체계의 논리적 모순이 나온다 .

[6] 나폴레옹 3 세 체제의 붕괴와 공화정의 수립